

2022년 국내학술대회 『여성주체의 재발견』 개최 여성 주체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발표와 토론

인문학연구원(원장, 정미라)은 6월 17일(금) 전남대학교 인문대 1호관 106호 이울호기념강의실에서 <여성주체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HK+가족커뮤니티인문학사업단의 2022년 국내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의 2단계 2년차 주제인 '주체'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사학회와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학술대회는 3개의 세션이 마련되었는데, 제1세션은 <여성주체의 다성적 현상>이란 주제로 조상현 HK연구교수(인문학연구원)가 「3·8 부녀절의 유입과 인식의 변화 추이」, 김수자 교수(이화여대)가 「미군정기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와 계몽운동의 간극」, 추주희 HK연구교수(인문학연구원)가 「농촌여성의 생존경제에서 돌봄관계의 변화 탐색」을 발표했고, 제2세션은 <가족·여성주체의 성장>이란 주제로 김지영 교수(서울대)가 「17세기 인조 가족의 갈등 양상과 세 여성 주체의 삶」, 김미선 교수(이화여대)가 「(퀸)어머니 부재와 '미성년' 딸의 여성 주체성」, 조호연 강사(오사카대)가 「근세 북부 베트남 여성의 회사 활동에 관한 재검토」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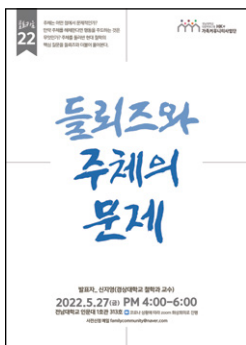


마지막 제3세션은 <여성 주체론의 재구성>이란 주제로 정희원 교수(서울시립대)가 「이란 여성 작가의 한계보-포루그 파로호자드에서 쉬린 네샤트까지」, 류도향 교수(인문학연구원)가 「관계적 주체와 '함께-말하기'의 조건」이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발표 이후에는 개별 지정 토론을 통해 여성 주체를 둘러싼 다양한 시각과 해석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마지막 종합 토론 시간에는 김병인 교수(전남대 사학과)를 좌장으로 모시고 개별 토론에서 정리가 되지 않았거나, 추가 보충이 필요한 내용에 관해 발표와 토론자를 중심으로 논의를 심화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정미라 교수(인문학연구원장)는 "이번 학술대회는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이 연차별 주제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켜 나가는 자리로 마련한 것으로, 그동안 많이 논의되었던 주체의 문제 가운데 여성 주체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촉발시키고자 하는데 무게 중심을 둔 자리였다. 특히 한국여성사학회와 공동 주최를 통해 사업단의 논의를 다른 학문의 시각과 교차 검토해 봄으로써 향후 조금 더 논의될 지점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론적 입점의 점검과 새로운 지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학술대회의 의미를 평가하였다.



‘들뢰즈와 주체의 문제’ 제22차 콜로키움 개최



인문학연구원(원장, 정미라)은 5월 27일(금) 인문대 1호관 313호에서 HK+가족커뮤니티인문학사업단의 제22차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제22차 콜로키움은 인문학연구원 류도향 HK연구교수(인문학연구원)의 사회로, 현대철학, 들뢰즈 철학 전공자인 신지영 교수(경상대학교 철학과)를 모시고 「들뢰즈와 주체의 문제」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콜로키움은 가족커뮤니티사업

단 2단계 2년차 아젠다 연구 주제인 "주체"를 심화 토론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현대 철학에서 주체를 둘러싼 핵심 질문을 들뢰즈와 함께 풀어보는 시간이었다. 신지영 교수는 서양 지성사에서 발명된 근대적 주체의 허구성을 설명하고, 새로운 주체화의 가능성을 들뢰즈의 '자기'(soi)라는 개념을 통해 제시하였다. '자기는 '나'(Je-심리적 삶의 보편적 형상)와 '자아'(ego-유기적 연속성 안에 포섭된 개인)를 벗어나는

것으로 무의식적 욕망의 능동성에 기반한다. 요약하자면 근대적 주체 이후 주체는 폐쇄적 자기동일성의 형상 아래에서 탈주하는 미지의 압도적인 사건을 통해서 가능하며, 이는 동시에 보수화된 공동체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관계 맺기의 잠재성과 연관된다고 하였다.

토론에서 정미선 HK연구교수(인문학연구원)는 탈주와 해체를 강조하는 들뢰즈의 철학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실천에는 취약하지 않냐는 질문을 제기했다. 이에 신지영 교수는 들뢰즈가 자신은 결코 아나키스트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으며, 실제로 그의 철학이 구성적 실천 자체를 배제하는 것도 아니라고 답했다. 들뢰즈는 공동체를 계속해서 재배치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강조했으며, 그 과정을 통해서만 사물화되지 않은 진정한 공동체가 가능함을 역설한다는 것이다.

지역인문학센터 ‘미디어 인문학’ 강의내용 엮어 시민문화총서 『평화와 연대의 인문학』 발간

인문학연구원(원장, 정미라)은 지역인문학센터 노드들이 KCTV 광주방송과 함께하고 있는 ‘미디어 인문학’ 프로그램의 2020~2021년 강연을 바탕으로 『평화와 연대의 인문학』이라는 제목의 시민문화총서를 발간하였다.

시민문화총서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 ‘평화의 인문학을 향하여’는 평화운동의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일상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평화운동의 개념과 사례를 소개하고, 적정기술로서의 커뮤니티 소통에 대한 인식적 전회를 제안하고 있다. 2부 ‘피로한 시대, 여성에게 길을 묻다’는 여성주의 활동가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여성의 시선을 통해 바라본 우리 사회의 커뮤니티 현실을 돌봄, 노동, 환경, 사건의 주제에서 탐색하고, 지향적 커뮤니티를 위한 성찰을 권유하고 있다. 3부 ‘연대하는 삶은 시대의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며 시민의 삶과 커뮤니티를 파괴하는 다중적 폭력이 교차하는 역사적 사건들을 조명하고, 대항적 커뮤니티 구성의 면모를 살핌으로써 공감과 연결을 통한 연대의 의미와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번 시민문화총서는 전지구적 시민사회의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필진들이 평화와 연대에 대해 성찰하고 제안하는 바를 풍성하게 담아내어, 우리 사회의 커뮤니티 실천에 대한 다양한 현황과 실질적 방향을 다채롭게 조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역인문학센터 ‘노드돌’ 2년차 사업 안내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지역인문학센터 ‘노드돌’은 2단계 2년차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맺음과 생태의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인문주체의 연대와 소통을 통한 인문학적 의제 도출과 현실적 적용, 시민이 인문주체로서는 인문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문주간>에는 2년차 사업의 주제인 “관계 맺음과 생태의 인문학”을 중심으로 토크 콘서트, 가족영화제 등이 펼쳐질 예정이며, KCTV 광주방송과 함께하는 미디어인문학 프로그램 <말의 인문학>을 6강에 걸쳐 기획하고자 한다. 주제별 세부 내용은 우측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분	주제	세부내용	기대효과
평생교육 및 소외계층 대상 인문 교육	가족 커뮤니티 인문학	- 다양한 가족모형을 성찰·논의하는 인문학살의 장 - 성·연령·세대·계층·젠더 등을 횡단하는 '가족담론 인문학'의 길 모색	- 가족담론의 시민사회에서의 관심 제고 - 다양한 가족구성에 대한 실천적 태도 형성
	감성 인문학	- 예술적 심미감 자각 - 감성을 매개한 배려와 보살핌의 인간학 - 미술로 읽는 가족 이야기	- 배려와 보살핌의 사회로 이행하는 계기 제고 - 관계 형성에서 감성의 역할 이해
연령별 맞춤형 인문 교육	사이인문학 [탈경계 인문학]	- 지역과 경계를 넘어 자유로운 소통 - 계층과 세대를 넘어 상호이해의 지평 형성 -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과 교류 "달구벌빛고을 인문학"[전반기/후반기 각각 8강]	- 지역 간, 계층 간 갈등과 대립 해소에 기여 - 지역 간, 계층 간 상호교류 확산
	시니어 인문학	- 노년의 삶을 대비하는 인문학적 성찰 - 노년 사이에 소통·공감·공존하는 인문학 삶의 길 모색	- 노년의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 - 노년의 삶에 대한 자기반성을 통해 참 삶의 의미 자각
초·중등 인문 소양 교육	융·복합 인문학	- 인문학과 과학 삶으로 접촉하다. - 인공지능을 횡단하는 인문학적 통찰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간학문적 접근 가능성 - 현대사회의 융복합적·통섭적 흐름 인식
	예술로 만나는 인문학	- 미술·음악·영화·사진으로 현실에 대한 인문학적 통찰 - 다양한 예술장르를 매개한 사고의 유연성 증진	- 예술로 형식화된 삶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 - 예술적 세계관, 예술적 가치관 모색
인문학 행사	청소년 미래가족을 품다	- 이질적 공중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인문학 - 인문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인문학	- 청소년의 소통과 공감 역량 배양 및 인권감수성 자각 -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 제고
	시민주체 토크 콘서트	- '책으로 사람과 사람을 잇다' 책 매개로 '열림'과 '어울림'의 삶 지향 - '내 삶의 책, 내 인생의 한 구절'로 서로의 삶에 대한 이해의 지평 확산 - 시심(詩心)으로 어울리는 삶 - '내 마음의 한 시(詩)'	- 범시민 인문 문화운동으로 확산·발전 - 다양한 책읽기·글쓰기 모임의 연계망 형성
인문학 탐방	인문마을 프로젝트	- 마을의 과거·현재의 기억과 재현 - 인문학을 기반으로 빛장공동체에서 트임공동체로 나아가는 마을 실천	- 마을시민이 주체적으로 구성하는 마을공동체 - 마을의 역사성과 현재성을 통찰하여 자기정체성 확인
	지역인물 탐방	- '시간과 공간, 사람과 사람' 지역인물에 대한 인문적 성찰로 지역정체성 규명 - 과거와 현재에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긴 인물에 대한 인문학적 탐구	- 지역인물 집중조명으로 지역적 정체성 및 특성 규명 - 지역의 인문문화 형성과 중심인물의 상관관계 규명
가족 영화제	가족 영화제	- '가족으로 새긴 이름들' 가족영화에 비친 다양한 가족의 모습과 특성 - 가족영화의 시대사적 주제변화와 가족담론의 상관관계	- 영화로 본 가족변화 이해 - 영상매체를 통한 가족담론의 시민사회에서의 파급
	시민·인문학자·인문학활동가 워크숍	- 시민·인문학자·인문학활동가·인문플래너(planner)가 어울리는 인문생태계 구성 - 시민이 주체가 되는 인문 문화 창출을 위한 논의 - 시민·인문학활동가 활동사례 발표 및 토론회	- 시민·인문학자·인문플래너·인문학활동가가 더불어 구성하는 인문 문화 흐름 형성 - 시민의 적극적 참여 분위기 진작
미디어 인문학	미디어 인문학	- 시민과 소통 가능한 매체의 다변화 및 인문학의 저변 확장 - 미디어를 매개한 인문학 보편화	-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여 인문학 저변 확충에 기여 - 다양한 지역인문학 주제 개발

연구원 학술 동정

논문게재

- ▶ 김은영, 「한 밀실공포증적 공동체에 대한 실험적 보고서 —애나 번즈의 『밀크맨』, 『영어영문학연구』 48권 2호, 대한영어영문학회 2022.5.31.
- ▶ 최대희, 「초국주의, 초국화 그리고 21세기 초국적 가족」, 『사회과학탐론과 정책』 15권 1호, 사회과학연구원, 2022.4.30.
- ▶ 한의승, 「공서(共棲)의 대상으로 인정받기-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및 이종(異種)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4호,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22.6.30.
- ▶ 한의승, 「徐居正의 『太平閑話滑稽傳』에 나타난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시선과 의미」, 『국학연구론총』 29집, 태권국학연구원, 2022.6.30.